

**밀 토성별 파종방법에 따른 생육 및 수량**김경민<sup>1\*</sup>, 현종내<sup>1</sup>, 김경훈<sup>1</sup>, 신동진<sup>1</sup>, 김영진<sup>1</sup>, 오명규<sup>1</sup><sup>1</sup>경상남도 밀양시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서론]**

현재 국산밀은 수입밀과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력화 및 다수확을 위한 다양한 재배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지역별 토양의 특성에 알맞은 재배법은 설정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토성별 알맞은 밀 파종방법을 설정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생면용 백중밀과 빵용 조경밀로 경북 상주와 경남 밀양 답리작에 전면산파(20kg/10a), 150cm × 500cm 간격으로 무경운 휴립광산파(16kg/10a), 경운 휴립광산파(16kg/10a), 30cm × 5cm 간격으로 세조파(13kg/10a), 4가지 방법으로 파종하였다. 시비량은 N-P<sub>2</sub>O<sub>5</sub>-K<sub>2</sub>O(9.1-7.4-3.9/10a)비율로 사용하였고 생육특성 및 수량은 농촌진흥청 표준 조사기준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각 지역의 토성비율은 상주에서 점토, 미사질, 모래의 비율이 각 8.5%, 28.2%, 63.3% 였고 밀양에서는 26.1%, 60.1%, 13.8% 비율로 상주 지역이 밀양 지역보다 투수성이 좋고 배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방법에 따른 출수기는 상주와 밀양 지역에서 조경, 백중 모두 광산파에 비해 전면산파가 1일, 세조파가 2일정도 늦어졌으나 성숙기는 거의 비슷하였다.

파종방법에 따른 수량성 조사 결과, 조경밀은 상주에서 무경운 휴립광산파, 경운 휴립광산파, 전면산파, 세조파 순이었고, 밀양에서 무경운 휴립광산파, 전면산파, 경운 휴립광산파, 세조파 순으로 수량이 나타났다. 백중밀은 상주에서 무경운 휴립광산파, 전면산파, 경운 휴립광산파, 세조파 순이었으나 세조파를 제외하고는 5%수준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밀양에서는 무경운 휴립광산파, 전면산파, 경운 휴립광산파, 세조파 순으로 수량이 나타났다. 종합 결과, 상주와 밀양 지역 모두 파종량에 대비하여 무경운 휴립광산파에서 최고 수량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상주 지역의 백중을 제외하고는 세조파가 많았고 전면산파에서 제일 적은 수량을 나타내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1903012017)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55-350-1174, E-mail. raiders87@korea.kr